



## 200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

### 2000년도 국세행정 개혁성과

- 국세청은 99.9.1을 기하여 『정도세정』을 선언하고 조직개편, 지역담당제 폐지 등의 구조개혁(Hardware)을 단행한데 이어 2000년에는 개편조직의 조기안정화와 업무개선, 인사쇄신, 의식개혁 등 총체적인 기능개혁(Software)을 추진하였음
  - 세금관련 고충처리를 위한『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』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납세자만족도 및 세정이미지를 대폭쇄신
  -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,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첨단 서비스체제 구축
  - 인터넷홈페이지(www.nts.go.kr)의 개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
  - 불필요한 민원증명 폐지로 납세자의 세무서방문 불편을 해소함 (연간 약 300만건 축소)
  -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 국내자금의 불법해외유출 차단과 국제적 투자자료의 감시기능 및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세원관리를 강화
  -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도 공공기관 과세자료제출제도 도입 등으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
  - 지역담당제 폐지, 기능별조직개편으로 납세자 접촉을 원천배제하여 일부 잔존부조리 발생소지를 차단하는데 주력함
- 그 결과 납세자만족도 14.1% 상승('99년60.1% ⇒ '00년 74.2%)
  - 세수 12조원 초과달성(예산 74조 ⇒ 실적 86조)
  - 국세공무원의 부조리를 대폭 축소시킴(부패추방 최우수기관 선정)

### 2001년도 추진계획

- 구조개혁과 기능개혁의 발전적 통합



- 광역 전화상담센터(call center)신설, Home Tax Service 실현(인터넷) 등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
- 신용카드 사용활성화,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 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
- 변칙적인 부의 세습, 호화사치생활, 부도덕한 기업경영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 음성, 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
- 조사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조정, 조사절차규정 철저준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세무조사 체계 확립
-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

○세정개혁의 지속적 보완, 내실화하여 『정도세정』정착

- TIS(국세통합전산시스템)기능을 정보분석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감
- 전분보직제 도입 및 성과배분 예산제도 등 기능별 조직에 걸맞는 인력 및 예산체계 확립
-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『세금바르게 내기 운동』 지속적 전개

○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따른 도피성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 등 세정대응능력 강화

○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전개를 위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, 생산적 중소기업, 구조조정 대상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대책 적극 강구

○대북교류 관련기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적 중소기업에 준하는 납기연장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대책 강구